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2 pp. 95-103, 2022

https://doi.org/10.5762/KAIS.2022.23.2.95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생의 인성, 공감능력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련성

김선영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Empathy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Seon-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Buch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공감능력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수를 산출하였으며, 최종 178부(96.2%)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수준은 4.10(±.40)점, 공감능력 3.95(±.43)점, 간호전문직관 4.20(±.44)점으로, 간호전문직관은 인성, 공감능력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 공감능력, 인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은 간호전문직관을 29.5%설명하였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나타났다(F=27.2, p=.000).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하기 위해 전공만족도, 공감능력과 인성수준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by understanding its relationship with their personality and ability to empathize.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n online survey from September 9 to October 18, 2020, for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a nursing college in Gyeonggi-do. The number of samples was calculated using the G-Power program, and the final 178 forms (96.2%) were used for analysis. The study results showed the personality level of nursing students to be 4.10 (±.40) points, empathy to be 3.95 (±.43) point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4.20 (±.44) points. The personality, ability to empathiz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e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major satisfaction, ability to empathize, and personality. These factors had an explanatory power of 29.5%,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major satisfaction (F=27.2, p=. 00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various programs that can improve major satisfaction, empathy, and personality levels to improve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se students.

Keywords : Personality, Empathy A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이 논문은 2020년도 부천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Seon-Young Kim(Bucheon Univ.)
email: imife5210@bc.ac.kr
Received December 9, 2021 Revised January 6, 2022
Accepted February 4,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 가치관 및 직업관 함양은 간호대학생 교육에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간호전문직관은 향후 임상실무 전문 간호사로 활동하는데 있어 간호의 방향설정과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 그러나 대학입학이라는 목표 하에 획일적인 교육을 받고 간호학과에 입학한 간호대학생을 전문 간호지식과 간호술기, 전문직관을 갖춘 간호사로 양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의 전문성 및 가치관과 직결되는 것으로 높은 간호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는 스스로의 업무에 높은 만족도를 높으며, 조직몰입 및 재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따라서 대학교육에서 간호전문직관 함양은 필수적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간호교육에서도 과학적 지식과 실무역량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춘 간호사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4,5]. 이를 반영하여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서도 학생 인성교육과 간호실무의 윤리와 관련된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5,6]. 기존의 간호교육은 간호업무 자체가 지속적으로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반면, 예비 간호사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을 위한 준비는 미비한 실정이다[7].

인성은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인간다움 품성으로 옳고 그름을 알고, 옳은 판단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7]. 간호사에게 있어 인성은 간호사로써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질이다. 인성은 전문직관 확립에 기초인 동시에 윤리적 행동을 위한 의사결정의 근간이 되어 간호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3,8]. 실제 인성과 간호서비스 질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환자와 가족들은 좋은 간호사에게 간호 받길 희망하며, 좋은 간호사는 전문 의료지식과 간호술뿐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높은 인성을 갖길 희망한다[10]. 그러나 신규간호사의 인성수준은 임상현장 관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1].

공감능력은 인간이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다[12].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타인의 감정과 비슷한 감정적 반응을 동반한다.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이 나의 감정처럼 쉽게 전달되어 '함께'할 수 있고, '우리'라는 관념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공감능력 향상을 통해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개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1]. 이러한 공감능력을 간호의 범위에 포함하기도 하며, 전문직 간호사가 갖추어야만 하는 자질 중 하나로 교육을 통해 향상 될 수 있다[13]. 공감능력 향상은 임상현장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종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15].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인성[15], 공감능력[12-14], 간호인성과 조직몰입에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보는 연구[2]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공감능력과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성과 공감능력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인성,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인성,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공감능력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로 편의표출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수는 선행연구[16]를 토대로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크기의 효과 .15, 검정력 95%, 설명변수 5개를 투입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는 138명으로 산출되었다. 총 18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나 부적절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여 178부(96.2%)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2.3 연구 도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성,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종교유무, 성적,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를 포함하여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2 인성

인성 측정 도구는 대학생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Lee와 Kim[16]이 개발한 것으로, 도덕적 지식, 도덕적 인식, 존중, 자기조절, 긍정적 자기이해, 배려/봉사, 역량/의지 8개 요인,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이었다. 하위 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책임감 .68, 역량/의지 .76, 배려/봉사 .76, 도덕적 인식 .71, 존중 .85, 자기조절 .79, 도덕적 지식 .75, 긍정적 자기이해 .73이었다.

2.3.3 공감능력

공감능력 측정도구는 Davis[17]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를 Kang등[18]이 번안하고 재구성한 도구로 인지적 공감 14문항, 정서적 공감 14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Davis[17]가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70이었고, Kang등[1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 하위 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인지적 공감 .73, 정서적 공감 .81이었다.

2.3.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Yeun 등[19]이 개발한 29문항을 Kim[20]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문항을 축소한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Kim[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이었다. 하위 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전문적 자아개념 .77, 사회적 인식 .82, 간호의 전문성 .81, 간호계의 역할 .74, 간호의 독자성 .88이었다.

2.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경기도 소재 일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Google설문지 양식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취지와 연구윤리 및 설문조사 URL을 포함한 안내문을 각 학년 대표를 중심으로 SNS를 통해 전체 학년에 자유롭게 배포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첫 문항에 연구참여 동의 내용을 수록하여 연구참여 동의를 득한 이후 구체적인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온라인 설문 조사에 불응 및 언제든 중단할 수 있음과 보안유지 및 연구목적으로만 자료를 활용할 것을 함께 안내하였다. 또한, 참여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은 조사문항에서 제외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였다. 설문응답 소요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인성,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분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하위그룹의 표본수가 적은 변수는 Kruskal-Wallis H test로 분석하였다. 제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성, 공감능력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표준화 잔차 분석 및 Durbin-Watson 지수를 통하여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69(±5.85)세로 24세 미만 135명(75.8%), 25세에서 29세 25명(14.0%), 30세 이상은 18명(10.1%)이었다. 성별은 여학생 156명(87.6%), 남학생은 22명(12.4%)이었으며, 1학년은 69명(38.8%), 2학년 34명(19.1%), 3학년 46명(25.8%), 4학년 29명(16.3%)이었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101명(56.7%), 성적은 4.0 이상 76명(42.7%), 3.5에서 4.0이 71명(39.9%)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적성 71명(39.9%), 취업보장 56명(31.5%), 주변권유 22명(12.4%) 순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149명(83.7%)이 만족하는 것으로, 대학생활 만족도는 103명(57.9%)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8)

Spec.		N	%
Age(years)	〈24	135	75.8
	25-29	25	14.1
	30≥	18	10.1
	Means(±SD)	23.69	(±5.85)
Gender	Male	22	12.4
	Female	156	87.6
Grade	1	69	38.8
	2	34	19.1
	3	46	25.8
	4	29	16.3
Religion	Yes	77	43.3
	No	101	56.7
Last semester grade	〈3.5	31	17.4
	3.5~4.0	71	39.9
	4.0≥	76	42.7
Admission motive	High employment rate	56	31.5
	Recommend	22	12.4
	Aptitude	71	39.9
	High school record	7	3.9
	Other	22	12.4
Major satisfaction	Non-Satisfaction	4	2.3
	Neutral	25	14.0
	Satisfaction	149	83.7
Expectation of university life	Non-Satisfaction	18	10.1
	Neutral	57	32.0
	Satisfaction	103	57.9

3.2 대상자의 인성,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대상자의 인성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4.10(±.40)점으로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책임감 4.58(±.36)점, 역량/의지 3.81(±.55)점, 배려/봉사 4.39(±.49)점, 도덕적 인식 4.29(±.46)점, 존중 4.35(±.54)점, 자기조절 4.35(±.54)점, 도덕적 지식 3.57(±.78)점, 긍정적 자기이해 4.10(±.63)점이었다.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95(±.43)점으로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는 인지적 공감 3.84(±.43)점, 정서적 공감 4.07(±.52)점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4.20(±.44)점으로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전문적 자아개념 4.45(±.47)점, 사회적 인식 3.42(±.78)점, 간호의 전문성 4.46(±.58)점, 간호계의 역할 4.40(±.64)점, 간호의 독자성 4.27(±.1.09)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of Variables

(N=178)

Variables	Mean±SD	Min	Max
Personality	4.10±.40	3.00	5.00
Responsibility	4.58±.36	3.40	5.00
Competence/Volition	3.81±.55	2.33	5.00
Consideration/Service	4.39±.49	2.40	5.00
Ethical consciousness	4.29±.46	3.00	5.00
Respect	4.35±.54	3.00	5.00
Self regulation	4.35±.54	3.00	5.00
Ethical knowledge	3.57±.78	1.67	5.00
Positive self-understanding	4.10±.63	2.33	5.00
Empathy Ability	3.95±.43	3.89	4.02
Cognitive empathy	3.84±.43	3.78	3.91
Emotional empathy	4.07±.52	3.99	4.14
Nursing Professionalism	4.20±.44	4.13	4.27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45±.47	4.38	4.52
Social awareness	3.42±.78	3.30	3.53
Professionalism of nursing	4.46±.58	4.38	4.55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4.40±.64	4.31	4.50
Originality of nursing	4.27±.09	4.11	4.43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은 교육수준(F=3.632, p<.05), 전공만족도(F=12.001,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1학년이 2학년보다 인성수준이 높았으며, 전공에 대해 만족할 경우 보통일 대상보다 인성수준이 높았다. 공감능력은 전공만족도(F=3.636,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연령 수준(F=1.939, p<.05)과 전공만족도(F=16.967,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24세 이하가 30에서 34살 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 전공에 만족하는 군이 불만족하거나 보통이 군에 비해 간호 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인상,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대상자의 인성,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인성(r=.456, p<.01), 공감능력(r=.392, p<.01)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감능력은 인성(r=.564, p<.01)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3.5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공감능력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간호전문직관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연령, 전공만족도, 공감능력과 인성을 독립변수로 처리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령과 전공만족도는 더미처리 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02으로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 분포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09 ~ 1.544로 10이하의 결과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Table 3. Differences of Personality, Empathy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with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78)

Characteristics		Personality			Empathy A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Mean±SD	t/F (p)	Scheffé	Mean±SD	t/F (p)	Scheffé	Mean±SD	t/F (p)	Scheffé
Age(years)	≤24[a]	4.13±.39	.297		3.98±.43	1.516		4.24±.40	1.939*	a>c
	25-29[b]	3.97±.34			3.78±.43			4.07±.29		
	30-34[c]	4.01±.55			3.98±.46			4.19±.44		
	≥35[d]	4.20±.46			4.00±.42			3.96±.60		
Gender	Male	4.02±.45	-.401		3.91±.47	.634		4.06±.62	-1.136	
	Female	4.11±.39			3.96±.43			4.22±.41		
Grade	1	4.20±.43	3.635*	a>b	4.00±.42	1.636		4.26±.35	2.920	
	2	3.97±.35			3.84±.39			4.25±.50		
	3	4.03±.39			3.91±.47			4.11±.53		
	4	4.17±.35			4.04±.46			4.13±.40		
Religion	Yes	4.13±.41	.412		3.97±.43	.428		4.18±.45	-.411	
	No	4.08±.40			3.94±.44			4.12±.44		
Last semester grade	<3.5[a]	3.94±.30	2782		3.91±.21	.138		3.89±.34	1.202	
	3.5~4.0[b]	4.15±.46			3.92±.35			4.21±.53		
	4.0≥[c]	4.12±.36			3.95±.48			4.23±.42		
Admission motive	High employment rate[a]	4.04±.36	1.105		3.89±.45	1.296		4.15±.48	.293	
	Recommend[b]	4.11±.38			4.02±.43			4.24±.34		
	Aptitude[c]	4.18±.41			4.02±.42			4.22±.44		
	High school record[d]	4.11±.51			3.92±.48			4.26±.36		
	Other[e]	4.03±.44			3.84±.40			4.21±.51		
Major satisfaction	Non-Satisfaction[a]	3.68±.63	12.001**	b<c	3.68±.56	3.636*	a<b<c	3.35±.54	16.967**	a, b<c
	Neutral[b]	3.81±.34			3.77±.36			3.91±.50		
	Satisfaction[c]	4.17±.38			3.99±.44			4.27±.39		
Expectation of university life	Non-Satisfaction[a]	4.04±.50	2.083		4.00±.51	.108		4.03±.59	1.194	
	Neutral[b]	4.03±.39			3.91±.35			4.18±.44		
	Satisfaction[c]	4.16±.38			3.97±.46			4.24±.41		

*p<.05; **p<.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78)

Variables	Personality	Empathy A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r		
Personality	1		
Empathy Ability	.564**	1	
Nursing Professionalism	.456**	.392**	1

**p<.01

Table 5. Factor Influencing of Nursing Professionalism (N=178)

Factor	B	S.E.	β	t	p
(Constant)	1.619	.332		4.872	.000
Major Satisfaction	.273	.067	.272	4.054	.000
Empathy Ability	.198	.078	.194	2.535	.012
Personality	.273	.088	.246	3.089	.002
Adj. R^2=.295 F=19.543 (p<.001)					

Dummy variables: Major Satisfaction(Non-Satisfaction=0, Neutral=d1, Satisfaction=d2)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회귀모형도 적합하였다(F=19.543, p<.001).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β=.273, p=.000), 공감(β=.198, p=.012), 인성(β=.273, p=.002)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9.5%이었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공감능력과 간호전문직관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인성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4.10점으로 이는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eo와 Jang[4]의 연구 결과 3.86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신규간호사의 간호인성을 연구한 Jung과 Lee[2]의 연구결과 3.71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1학년이 2학년에 비해, 그리고 전공만족도에 만족할 경우 인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인성도구를 이용한 선행 연구[3,5,15,21]에서도 인성수준은 학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3,21]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보통수준 이상의 높은 인성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인성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통수준 이상의 간호대학생의 인성수준을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및 선행연구[3,5]에서는 연령이 인성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인성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년이나 연령이 아닌 전공만족도를 고려한 단계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95점으로 신입간호대학생으로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이용한 Lee와 Lee[1]의 연구결과 3.23점과 Koo[13]의 연구결과 3.25점, 1~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대상으로 한 Je와 Park[14]의 연구결과 3.53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난 반면, Je와 Park[14]의 연구에서 휴학여부, 주거환경, 전공만족도에 따라, Kim과 Yi[22]의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성별, 학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공감능력에 차이가 없음은 Kim과 Yi[22]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Kim과 Yi는 간호교육이 과학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정서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의 공감능력이 감소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감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입학 초기부터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14,22,23]결과를 토대로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통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공감능력은 타인의 상태를 간접 경험해봄으로써 자신의 상대방과 자신의 마음상태를 비슷하게 만드는 간접경험을 통해 형성할 수 있다[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체 교육과정 동안 다양성을 수용하고, 치료적 관계에서 정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

도록 도울 수 있는 단계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4.20점으로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는 전문적 자아개념 4.45점으로 가장 높게, 사회적 인식 3.4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입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Lee와 Lee[1]의 연구결과 3.60점,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Jeong[3], Je와 Park[14], Kim과 Lee[15]의 연구 결과 3.83점, 3.90점, 4.13점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영역별 점수 또한 선행연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선행연구와 일치한다[3,24]. 이는 간호사에 대한 전문성은 높은 반면 전문직으로 간호를 인식하는 사회적 이해와 공감은 다소 부족함을 의미한다[24]. 본 연구에서 24세 미만의 간호학생이 30~34세 간호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입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Lee와 Lee[1]의 연구결과에서 21~25살의 신입간호대학생이 26~29세 신입간호대학생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Je와 Park[14], Hwang과 Shin[24]은 전공 학습량의 증가와 다양한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하여 간호전문성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아 간호전문직관이 낮게 나타난다[24]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년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만족함이 보통이나 불만족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선행연구[3,14], Kwon과 Kim[25]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여부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인성, 공감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공감, 인성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9.5%이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Lee와 Lee[1]의 연구에서는 감사성향, 공감능력이, Je와 Park[14]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공감, 대인관계능력이, Kim과 Lee[15]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인성이, Lim[26]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 임상간호인성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설명력은 18.5~41.8%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1,14,15,26]. 본 연구결과 전공만족도, 공감능력, 인성수준이 높은 군이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교육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과 동시에 공감능력과 인성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전체 교육과정, 교수-학생 관계, 전공분야 관심에 대해 만족감, 간호학 및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감 등으로 구성된다[22].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교육과정 동안 교수-학생과의 긍정적 관계형성, 전공에 대한 긍정적 관심 유지를 통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단계적, 전략적인 공감능력과 인성수준 향상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전공만족도, 공감능력, 인성이 중요 영향요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령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바람직한 임상간호사로서 성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3]로 전체 간호교육과정에서 이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의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하나로 측정된 문항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선행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전공만족도, 공감능력, 인성수준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 고려하여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해 실증적 검증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J. Y. Lee, D. Y. Lee, "The effects of empathy Ability,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ew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3, pp.351-360, 2021.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1.12.3.351

[2] S. Y. Jung, H. D. Le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characte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n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5, No.3, pp.239-247, 2019.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9.25.3.239

[3] M. H. Jeong, "Effects of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9, pp.302-314,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9.302

[4] M. L. Heo, Y. M. Jang, "Validation of the personality measurement tools for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3, pp.321-330,201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9.25.3.321

[5] M. R. Lee, M. H. Nam, "Personalit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6, pp.427-437,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8.56

[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of nursing education workshop workbook,*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21, *p.44.*

[7] O. H. Koo, Y. M. Ryu, "The influence of ethical values and ethical sensitivity on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9, pp.219-228,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9.219

[8] D. Weis, M. J. Schank,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32, No.2, pp.201-204, 2000.
DOI: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0.00201.x

[9] E. Y. Yeom, K. W. Seo, "Influences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character of nurses on quality of nursing serv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4, No.5, pp.445-454, 2018.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8.24.5.445

[10] M. H. Kwon, J. W. An, "Subjectivity perceptions on the nurse's admirable characte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Vol.43, pp.121-140, 2018.
DOI: http://dx.doi.org/10.18346/KSSSS.43.6

[11] J. A. Kim, M. S. Chu, K. J. Kwon , H. K. Seo, S. N. Lee, "Core competencies for new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3 No.1, pp.40-53, 2017.
DOI: https://doi.org/10.22650/JKCNR.2017.23.1.40

[12] S. Yang, "Character-trait required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Sentiment based on imagination and sympathy",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No.86, pp.495-517, 2017.
DOI: https://doi.org/ 10.15841/kspew..86.201712.495

[13] O. K. Koo,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wareness, self-esteem, empathy and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7, pp.172-182,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7.172

[14] N. J. Je, M. R. Park,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oral self, moral behavior, self-control,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age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8, pp.361-370,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8.361

[15] W. J. Kim, J. G. Lee,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on nursing professional,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Semiannua*, 2021, pp.247-250.

[16] K. Y. Lee, C. S. Kim,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rsonality measurement tools for colleg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6, pp.401-422, 2017.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16.401

[17] M.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4, No.1, pp.113-126, 198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18] I. Kang, S. Lee, S. E. Kim, B. S. Jeong, J. H. Hwang, J. E. Song, J. W. Kim,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48, No.5, pp.352-358, 2009.
UCI : G704-001050.2009.48.5.006

[19]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1091-1100, 2005.
DOI: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20] M. H. 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Graduate School Kyeonghee University, 2008.

[21] M. H. Lim,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560-568,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8.560

[22] H. J. Kim, M. S. Yi,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2, pp.237-245, 201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37

[23] H. J. Yeo, "Predictors of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 pp.177-184,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1.1774

[24] E. H. Hwang, S. J. Shin,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1, No.1, pp.97-108, 2017.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7.31.1.97

[25] Y. E. Kwon, S. Y. Kim,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ng prospective graduates in nursing colleg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1, pp.80-89, 2018.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8.24.1.80

[26] S. M. Lim,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 valu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5, pp.51-59, 2020.
DOI: http://dx.doi.org/10.22156/CS4SMB.2020.10.05.051

김 선 영(Seon-Young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7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3월 ~ 2016년 2월 : 신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삶의 질, 죽음의 질, 생명의료윤리, 아동, 간호교육